

『형태론』 15권 2호 (2013년, 가을철), 260-265.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 성 하

## 1. 개관

1994년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출판과 더불어 세계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세계 언어들의 시제, 상, 양태 체계를 범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발달의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문법범주로서 중요한 시제, 상, 양태 표지들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공시적인 분포상태를 통해서 통시적인 변화의 방향, 즉 문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 2. 체제와 내용

이 책은 서문과, 8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3개의 부록, 참고문헌, 그리고 저자, 언어, 주제별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과 제 2장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을 자세히 설명한 장으로서 이 책의 서론에 해당된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제 1장에서는 이 책의 저술목표가 범어적인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문법범주의 의미와 그 표지의 음운론적 실현, 그리고 이러한 범주의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1

발달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문법형태소를 ‘그램(gram)’이라 칭하고 단순히 이 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그 그램들이 그러한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문법적 의미의 발달과정은 정지되어 있는 공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통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에 관여하고 있는 인지적인 요인들과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란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들은 반드시 통시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들 간에 공시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사성도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을 위해 문법화(grammaticalization; grammaticization)가 가장 적합한 이론틀임을 소개하고 있다. 문법화적 관점에서 의미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화(generalization)이며 이것은 의미축소, 의미탈색(Givón 1975), 소실(Lehmann 1982, Heine & Reh 1984) 등으로도 불린다. 음운적 축소는 의미축소와 평행적으로 일어나는데 음운적 축소는 형태적인 발음의 축소뿐만 아니라 발음에 소요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서 인접 형태에 의존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 1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4에서 문법화의 원리들을 몇 가지의 중요한 가설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는 어원결정가설(source determination)로서, 이 가설의 핵심은 문법화에 참여하게 되는 구문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 해당 구문이 겪게 될 문법화의 과정과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법 기능을 획득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법소에 대한 이러한 일종의 ‘숙명’ 이론은 하이네 밖에(1991), 크레이그(1991) 등에서 주장한 동일 문법소가 다양한 문법표지로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는, 단일방향성가설(unidirectionality)로서 그램들이 문법화 될 때에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발달한다는 것이다. 즉 결과상(resultative)으로부터 이전상(以前相; anterior), 다시 완료(perfective)나 과거(past)로 발달하는 것은 정방향이지만 이 방향을 거슬러서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편경로가설(universal path)로서 문법화에서의 의미변화는 결국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의미군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언어들 있지만 이 언어들에 나타나는 그램들의 의미는 범언어적으로 볼 때 결국 제한적인 집합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의미지속가설(retention of earlier meaning)로서, 문법화에 참여하는 구문들은 비록 문법화가 많이 이루어진 후에도 초기의 의미가 계속 남아 있어서 해당 그램들의 형태통사적 특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평행성가설

(parallel reduction)로서, 문법화 과정을 거치는 구문들은 그 음운적 형태에서의 축소와 의미적 형태에서의 축소가 비슷한 속도로 평행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층위화가설(layering)로서, 특정한 그램 타입에는 한 개 이상의 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복수의 그램들은 각각 그들이 발달한 시기상으로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곱 번째로는, 상관성가설(relevance)인데, 동사적 의미에 관련이 깊은 문법 범주일수록 동사에 가까이 나타나고 그 동사에 형태적으로 의존하는 문법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상관성이 적을수록 동사와 떨어져 나타나서 동사에 형태적으로 의존하는 문법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즉 층위화된 샘플들을 구성하고, 샘플 언어에 대한 참고문헌을 확보하고, 각 참고문헌으로부터 나타나는 문법 정보를 코딩한 후에, 가설들을 검증해 본 것이다. 특히 샘플 언어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통적인 지역적인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퍼킨스(1980), 바이비(1985) 등에서 사용했던 50개 언어의 추출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뵈겔린 & 뵈겔린(1978)의 4,000개 언어로부터 최종적으로 76개의 언어를 선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이를 GRAMCATS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문법표지 즉 그램으로서 분석대상이 될 만한 조건으로는 (1) 폐쇄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2) 동사를 기준으로 고정된 위치에 있어야 하며, (3) 어휘적으로 일반성을 갖춰야 하며, (4) 대부분의 문맥에서 예측 가능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문법화 척도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 또는 단어 > 비의존적 그램 > 굴절의 단계로 그램들을 분석하고 또한 이들이 형태통사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융합의 정도를 통사적 > 비의존적 그램 > 굴절 > 파생 > 어휘의 단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전상, 완료, 또한 이와 관련된 문법의미, 즉 과거시제, 완결상, 결과상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법의미들은 주로 계사, 'have, remain, wait, finish, be finished' 등과 같은 동사들이나, 'away, up, into' 등과 같은 비동사 개념, 또는 지시사 등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사나 소유동사, '오다', 그리고 '끝내다'와 방향성 표지어 등과 같은 3개의 완료상/과거 채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합류를 거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문법화에 대한 정량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의미의 변화정도와 형태의 변화정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즉 의미적으로는 변화정도에 따라 Perfrage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3

1단계인 완결상, Perfage 2단계인 초기 이전상, Perfage 3단계인 후기 이전상, Perfage 4단계인 완료, 그리고 Perfage 5단계인 단순과거로 나누고, 형태적으로는 자음, 단모음, 장모음으로 나누어 값을 산출하고 비교한 결과 평행성 가설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진행, 미완료, 현재시제와 이와 관련된 의미들, 즉 계속상, 습관상, 반복상, 빈발상, 지속상 등의 문법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어휘의미가 아직도 투명한 경우에서 발전하는데 처소표지, 존재동사, 자세동사, 이동동사 등으로부터 발전한다. 특히 이전의 연구(Comrie 1976 등)에서 제안했던 계속상이나 비진행상 등의 개념에 대해 중요한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굴절에 의해 표시되는 완료는 실제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과거시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범언어적 통계로 밝히고 있다.

제 6장에서는 서법과 양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mood’ ‘modality’로 불리는 문법 개념들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양태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의견을 보여주는 문법화된 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행위자 중심 양태(필요, 능력, 소망), 화자 중심 양태(명령, 금지, 기원, 청유, 경고, 허락), 인식양태(개연성, 확실성, 비사실성), 종속양태(보충어, 양보, 목적 등)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서법은 바이비(1985)의 방식에 따라, 비의문문에 나타나는 담화기능의 다양한 표지로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 있는 집합으로 보고 이러한 이질성 때문에 확실한 범주화가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특정 문법범주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보다 오히려 어떠한 요소들이 통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법과 양태를 연속선상에서 다루며 여기에는 의무(obligation), 필요(necessity), 능력(ability), 잠재성(potentiality), 가능성(possibility), 기원(optative), 조건(conditional), 가정(subjunctive)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표지는 문법개념으로서도 복잡하여서 다양한 어원에서 출발하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의 발달과정을 도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서법과 양태표지는 시제와 상표지보다 접사와 같이 의존형태소로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낮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상관성가설에 비추어 볼 때, 서법과 양태는 시제와 상보다 범주적으로 볼 때 동사의 의미와 상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제 7장에서는 미래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래시제가 미래적 확실성, 미래적 가능성 등과 같은 인식적 양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표지가 주로 ‘오다’, ‘가다’와 같은 이동동사, 욕구, 희망, 변화, 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 등 다양한 어원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는 ‘가다’, ‘오다’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법화 어원이며, 미래시제가 가장 빈번하게 표현하는 미래적 개념은 의도와 예측이다.

제 8장은 의미변화의 기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법화에 작용하고 있는 은유, 추론, 일반화, 조화 등의 역할을 자세히 논하고, 특히 문법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빈도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동기라든가, 기능적인 목적론 등은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사소통과정에서 은유나 추론, 맥락활용과 같은 인간의 인지작용에 바탕을 둔 보편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범언어적인 유사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3. 학술적 기여

이 책이 언어학계에 기여한 점은 매우 많다. 특히 언어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문법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 연구방법론상으로는 연구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이러한 학술적 기여는 다음 네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어떻게 언어에 문법이 생겨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전의 경우처럼 추측이나 막연한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에 대한 정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언어의 분석이 단순히 사변적인 추측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과학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이 계량적 분석은 기존의 경우처럼 몇 가지 제한된 언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통계적 치우침이 없는 범언어적 데이터 추출을 위해 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이 잡힌 대표성 있는 76개의 언어 샘플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대부분의 유형론적 접근법에서는 샘플언어 선정 시 단순히 자료가 있는 언어만으로 선정을 하게 됨으로써 특정 언어, 특히 자료가 많은 일부 유럽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통계적 치우침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를 잘 극복한 매우 과학적 연구가 시도된 것이다.

셋째, 이 책에서는 계통적인 유사성이나, 지리적인 인접성이 없는 언어들 사이에서도 범언어적인 공통점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언어의 연구는 결국 인간의 공통된 인지작용에 대한 연구임을 매우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넷째,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주들로 꼽히는 시제, 상, 서법에 대한 연구를 분할해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들 범주들 간의 상호작용과 통시적인 발달과정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5  
상의 연결성을 잘 보여 주었다. 즉 이러한 범주들이 범언어적으로 매우 유사한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문법화 연구가 언어의 본질, 문법의 생성과정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론틀임을 설명하고 있다.

## 참 고 논 제

- 바이비(Bybee, Joan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한국어 번역본: 이성하·구현정 (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콤리(Comrie, Bernard)(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크레이그(Craig, Collette.)(1991), Ways to go in Rama: A case study in polygrammaticalization. In Elizabeth C. Traugott and Bernd Heine (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Vol. 2: 455-492. Amsterdam: John Benjamins.
- 하이네·클라우디·휘네마이어(Heine, Bernd a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퍼킨스(Perkins, Revere D. 1980), *The Evolution of Culture and Grammar*.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 보겔린·보겔린(Voegelin, Charles F. and Florence M. Voegelin.)(1978), *Classification and Index of the World's Languages*. New York: Elsevier.

이성하(李星夏)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학과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 02-2173-3171  
Email: srhee@hufs.ac.kr

(2013. 11. 18. 원고 받고, 2013. 11. 18. 심사하고, 2013. 11. 22. 실기로 함)